

오늘의 성가

| | | | | | |
|-----|------------|---------------------|-----|------------|---------------------|
| 입 당 | 128 | 형제여 기뻐하라 알렐루야 | 성 체 | 156 499 | 한 말씀만 하소서 만찬의 신비 |
| 봉 헌 | 512 221 | 주여 우리는 지금 받아 주소서 | 파견 | 132 | 감사의 송가를 |

말씀의 초대 卍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 회당에 들어갔다 거기서 박해를 받고 쫓겨나 이코니온으로 간다(제 1 독서). 요한 사도는, 큰 무리가 희고 긴 겹옷을 입고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양 앞에서 있는 것을 본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양들은 당신 목소리를 알아듣고 당신을 따른다며, 당신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신다(복음).

제 1 독서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卍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3,14.43-52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0(99),1-2.3.5(◎ 3 ㄷ 참조)



후렴: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이,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 2 독서

<어린양이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卍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7,9.14 ㄴ-17
 나 요한이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겹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좌 앞에 또 어린양 앞에서 있었습니다.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겹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어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음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7-3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 연미사 | 생미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은하 ▪ 이종우(도밍고), 정숙림(막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이경옥(루시아) ▪ 정수익(요한), 정재순(수산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종원(요한)의 영혼을 위하여 - 이창훈(마티아) ▪ 문형곤 형제님 부친 문장성(대건안드레아)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스트브런스위 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희(수산나) 빠른 회복을 위하여 - 수랏상/이 베로니카 ▪ 오홍순(카타리나)의 건강을 위하여 - 홍원기(에우세비오)가족/서경호(안드레아)/이스트브런스위 구역/이윤석(리차드) 가족 ▪ 김비오, 마리안나의 가정을 위하여 - 최 율리아나 ▪ Thomas 와 Kelcie 의 새 가정에 축복을 기도하며 - 가족/요셉회 ▪ 백인혁(그레고리오)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오요한 가족 ▪ 이상완(바오로)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김동근(사도요한) 가족 ▪ 김정민(말첼리노)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김상기(요셉) 가족 ▪ 이정우(바오로)의 쾌유를 위하여 - 이윤석(리차드)가족/이스트브런스위 구역 ▪ 윤중현(엘리사벳) 자매님의 쾌유를 위하여 - 이 베로니카 ▪ 박성재(안토니오) 첫 영성체를 축하하며 - 이스트브런스위 구역 ▪ 김승수(안드레아) 첫 영성체를 축하하며 - 럿거스 구역 |

 **지난 주 우리의 정성**

| | | | | | |
|---------------|--------------------|--------------------|--------------------|----------------------|------------------------------|
| KCC 주일 헌금 | \$1,141 | OLM 주일 헌금 | \$3,246 | 미사 참여자 수 | 186 명 |
| KCC 이차 헌금 | \$505 | OLM 이차 헌금 | \$758 | 감사 헌금 | 서인석 (\$500) |
| 교무금 (\$2,210) | 한광동(5-6) 나한복(5) | 강성천(4) 채희백(5-6) | 백상현(5) 최완준(4-6) | 서영원(5-6) 백영숙(3-4) | 김진(4-5) 최율리오(5) 이상화(5) |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헌금
 - Payable to *Our Lady of Mercy* 또는 *OLM*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 교무금과 감사헌금은 봉헌함에 넣지 마시고 사무장에게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 소식

◆ 2차 헌금

- 오늘(5/12) 미사 중 성당 유틸리티 비용 지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5/19) 미사 중 중남미, 동유럽 선교 사업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2019 성모의 밤 행사

- 일시: 5월 18일(토) 저녁 7시
- 장소: 성당

◆ 주교님 집전 미사 안내

- 5월 19일 Our Lady of Mercy 우리 본당에서 오전 11시 주교님 집전 미사가 있습니다.
- 당일 오전 8시, 10시, 11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신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님 승천 대축일 한국어 미사

- 일시: 5월 30일(목) 저녁 8시
- 장소: 성당

◆ 신자등록서 배부

- 신자등록서 양식은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배부되고,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5월 26일까지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2019 Bishop's Annual Appeal

- 2019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이며, 5월 3일까지 납부된 금액은 \$27,305.57 (목표금액의 78.02%)입니다.
- 체크로 납부하실 경우 Diocese of Metuchen - Bishop's Annual Appeal 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2019 OLM Church Parish Communion Breakfast

- 미국 신심단체 Rosary Altar Society 와 Holy Name Society 주관으로 진행되는 Communion Breakfast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6월 9일(주일) 9:00-11:00, 친교실
- 티켓 가격: \$17 (13세 이상 성인), \$8 (6-12세 아동)
- 티켓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고.

◆프린스턴 한인성당 25주년기념 골프대회

- 일시 : 6 월 15 일 (토) 오전 10 시 30 분 (신청마감 6/1)
- 장소 : Mercer Oaks Golf Course
- 참가비 : \$120 (점심, 저녁식사 제공)
- 참가신청 : 오용운(토마스아퀴나스) 행사분과장 또는 사무실

◆ 2019 San Alfonso's Men's Retreat

- 주제 : "The Call to Holiness"
- 일시 : 9 월 6 일 ~8 일
- 장소 : San Alfonso's Retreat House
(755 Ocean avenue Long Branch, NJ07740)
- 참가비: \$240
- 문의 : Felix Reid (732-259-0979)
Keith Fasanello (732-356-5780)

◆서현주(아네스) 자매님께서 주일학교에 \$500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마트 상품권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소공동체 소식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5 월 12 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전례회의

- 일시: 5 월 12 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미 신심단체 Holy Name Society Meeting

- 일시: 5 월 14 일(화) 저녁 7 시 30 분
- 장소: 친교실

◆ 요셉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5 월 25 일(토) 오후 6 시, 친교실

◆ 구역모임

- 럽거스
 - 일시: 5 월 19 일(일) 오후 1 시
 - 장소: 최두철(요셉) 형제님댁
- 먼로
 - 일시: 5 월 19 일(일) 오후 5 시
 - 장소: 배인호(스테파노) 형제님 댁
- 우드브릿지, 피스카타웨이
 - 일시: 5 월 25 일(토) 저녁 7 시
 - 장소: 맹 어거스틴 형제님 댁 (2 Orchard Rd. Piscataway)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눕니다

✕ 요한 10,27- 30(부활 제 4 주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요한 10,27)

1.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들이 있었다면 언제였고, 그때 나의 응답은 어떠했나요?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요한 10,28)

2.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 착한 목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영원한 생명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 적이 있나요? (입교권유, 쉬는 교우 방문, 성사 권유 등)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요한 10,28)

3.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교회라는 울타리가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경험 있다면, 언제인가요?

기도와 휴식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역시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때로는 쉬시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기도 하시면서, 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쁜 일상과 과업 중에 쉴 틈도 없이 움직이는 우리들, 또 시간은 여유로워도 쉴새 없이 머리와 마음으로 삶을 걱정하고 고뇌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쉴 틈도 없이, 기도하시며, 쉬시며, 여유를 찾으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은 하느님 아버지 품에 안기어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그런 여유와 위로 속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느님의 지혜 안에서 또 우리는 고되고 바쁜 그리고 여러 걱정과 고민으로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연습합니다. 기도하며 휴식하는 시간을 아까워 말고, 언제나 어디서든 멈추어 하느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여유를 부려 보면 좋겠습니다.